

싱가포르 · 샤먼 도시개발과 도심지 주상복합 건축문화의 형성

-숍하우스 ‘5피트’ 외랑공간의 발견과 역사적 의미-*

1)

김 종 호**

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근대 식민도시의 대표격인 싱가포르와 푸젠(福建)계 화교·화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문도시였던 샤먼(廈門)을 중심으로 두 도시 사이에 형성된 도심지 건축양식의 동화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세기 싱가포르, 20세기 샤먼의 도심지 형성에 보이는 동화현상을숍하우스 건축양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싱가포르는 도심지 거리조성의 일환으로 영국 식민당국에 의해 정책적으로숍하우스 거리가 형성된 최초의 도시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샤먼은 광저우(廣州)와 함께 중국 동남부 지역 최대의 교향(僑鄉)이자 중요한 관문도시로서 가장 발전된 도심지를 형성한 도시였다.

숍하우스 건축문화는 기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걸쳐 중국, 영국제국, 동남아시아 등의 다양한 문화가 혼합하여 발생한 ‘혼종적 건축문화’였다. 이러한숍하우스 형태의 건축이 행정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도시구획 혹은 도시개발의 한 축으로써 계획적으로 건설된 경우는 19세기 초중반 싱가포르가 최초였고, 중국에서는 20세기 초중반 광저우, 샤먼 등 주요 교향 도시에 중앙정부의 도시개발과 맞물려 싱가포르에서숍하우스 건축문화를 경험한 화교화인들에 의해 건설되지 시작하였다. 19세

* 이 연구는 201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과제번호 201810024.01)

** 서강대 동아연구소 조교수.

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솽하우스 건축양식의 초국적 동화과정에서 개개의 솽하우스를 연속적으로 규칙성 있게 붙여놓아 이전의 솽하우스 건축양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외랑(外廊, arcade)식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5피트 너비였고, 베란다(verandah)로도 불렸던 이 공간은 열대라는 기후와 관련하여 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 솽하우스(우자오치) 건축문화가 형성된 것은 중국인 이민자 그룹이 각 제국주의 식민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 및 역할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대농장 혹은 광산 운영과 같이 면을 차지하여 1차 산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수의 이민자 수요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인, 인도인, 현지인(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인, 부기스인) 등 대규모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이동과 이주, 현지적응 등의 해결이 시급해졌다. 동시에 그에 따른 각종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상인그룹은 도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맡았고, 솽하우스 건축군은 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인프라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양식이었다. 솽하우스를 이용해 주상복합의 도심지 거리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환경에 필수적인 상가 수요를 충족하고, 베란다 공간을 통해 기후적 고려와 함께 쇼핑아케이드를 외부에 형성함으로써 상품의 매매가 쉽도록 고려한 것이다.

19세기 동안 싱가포르의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러한 도시개발의 과정과 솽하우스 건축문화 및 5피트 공간의 유용성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중국인 이주자 그룹에게 이 5피트의 공간은 피식민자로서 그들의 지위에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있던 영국 식민정부에 ‘Verandah Riot’이라 불리는 반기를 들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내재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 화교·화인들은 1920-30년대 국민당 중앙정부에 의한 샤먼시 도시재개발의 붐을 타고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5피트 공간을 그대로 이식하게 된다.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샤먼의 외랑공간 역시 각 점포의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아열대 기후의 우기와 강렬한 빛을 피

하려 하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건축문화와 중국 남부 주요 교향도시의 건축문화 사이에 보이는 이러한 문화적 동화현상은 국가와 민족 중심의 화교 정체성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샤먼에 이식된 주거공간인 우자오치는 영국 식민문화, 동남아의 열대기후, 중국적 특성을 혼합한 혼종문화의 산물이다. 이는 두 지역에서 보이는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방적 문화이동 및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아닌, 이민을 통한 문화교류와 지역 간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혼종문화가 탄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제어: 솽하우스, 우자오치, 치로우, 화교, 교향, 싱가포르, 샤먼, 도시개발

I. 서론

흔히 동남아시아의 화교 · 화인 문화는 수백 년 동안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중국과 서구문화가 교류한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그 교류의 핵심은 “中學爲體, 西學爲用”으로써 중화(中華)의 정신을 보존하면서 서구의 근대적 기술문명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보는 학계의 시선이다. 즉 화교 · 화인 문화에서 서구문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보충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張應龍 2006). 화교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왕궁우(王廣武 Wang Gungwu) 역시 이민의 패턴과 정치적 인식 등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화교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구든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인”이라고 인식한다(Wang 1991; Yen 2014; Yen 1982; Yen 1984; Liu and Benton 2016).

즉,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의 정체성 및 성격에 관하여 기존 연구에 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에 전파된 양상

과 동남아 화교공동체의 중국적 전통문화 보존 노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필립 쿤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의 경우 ‘중국/중국인’이라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시각이 아닌, 화교·화인들이 이주지에서 접한 환경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그 ‘혼종성(hybridity)’에 주목하고 있다(Kuhn 2008; Barrett 2012; Kuo 2006; Koh 2013). 더 나아가 마귀칭(Ma 2017)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중국인 이민을 매개로 남중국해(푸젠(福建), 광둥(廣東), 타이완, 홍콩, 동남아)에 걸쳐 형성된 초국적 지역정체성의 모색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집단이주를 통한 문화교류라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혼종의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hybridization)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은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가 서구적 근대와 식민체제 경험, 열대지방 특유의 이국적 문화수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혼종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을 전제한다.¹⁾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혼종문화가 오히려 그들이 떠나온 중국 대륙의 고향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결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둔 두 지역 사이에 - 화중·화북과는 구별되는 -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초국적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근대 남중국해 주변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표적 주상복합 건축양식인 숭하우스(shophouse) 건축양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Izumida 2003; Wallach 2013; Zhang 2015; Bhardwaj and Garg 2016; King 1982; 泉田英雄·黃俊銘 1994; 江柏煒 2003; 江柏煒 2012; 張應龍 2006; 張雪冬 2008; 박

1) 특히 중국의 푸젠성 지역은 광둥성과 함께 대표적인 화교 배출지로 꼽힌다. 대부분의 푸젠 출신 중국인 이민자들이 동남아시아로 향했는데, 주로 말레이시아, 해협식민지(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지에 모여서 주류사회를 형성하였다. 본문에서는 이 푸젠 출신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와 출신지역으로서 푸젠성과의 문화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순관 2002; 우동선 외 2012; 이상헌·윤인석 1998).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근대 식민도시의 대표적인 싱가포르와 푸젠(福建)계 화교·화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문도시였던 샤먼(廈門)을 중심으로 두 도시 사이에 형성된 도심지 건축양식의 동화현상을 고찰해 보려 한다. 싱가포르는 도심지 거리조성의 일환으로 영국 식민당국에 의해 정책적으로 솅하우스 거리가 형성된 최초의 도시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샤먼은 광저우(廣州)와 함께 중국 동남부 지역 최대의 교향(僑鄉)이자 중요한 관문도시로써 가장 발전된 도심지를 형성한 도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먼의 경우 광저우나 진먼(金門) 지역에 비해 솅하우스 도심지 조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가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싱가포르, 20세기 샤먼의 도심지 형성에 보이는 동화현상을 솅하우스 건축양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II. ‘솅하우스’ 건축양식의 기원을 둘러싼 논의들

근대 중국 동남부 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구도시에 형성된 주상복합의 건축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솅하우스(shophouse), 파이프 풋웨이(five foot way), 카키 리마(kaki lima), 치로우(騎樓), 우자오치(五腳基), 베란다 하우스(verandah house) 등등이다. 주상복합의 도심지 건축양식을 가리키는 용어의 다양성은 이러한 건축양식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초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건축양식의 기원에 관해 일치된 의견 역시 없다는

2) 광저우 지역의 경우 1912년 대륙 최초로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솅하우스 건축양식이 지어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편이다(楊宏烈 2010; Zhang 2015).

점이 흥미롭다. 본 장에서는 그 기원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을 개괄하고, 동시에 본 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려 한다.

우선 중국 대륙의 건축문화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 연구들이 있다. 소위 ‘상하점주형식(上下店住形式)’으로써 ‘점옥(店屋)’이라고 불리는 주상복합의 건축양식이 이미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주로 선착장에 접하여 창고, 작업장, 상점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일층은 상점 혹은 작업장, 이층은 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북방 ‘사합원(四合院)’형식의 건축양식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한족의 남하와 강남 개발과 함께 푸젠, 광둥지역의 기후적 특색에 맞게 변형된 것이다(布野修司 外 2017; 楊宏烈 2010). 게다가 푸젠, 광둥 연해지역은 송(宋)대부터 동남아시아와 활발히 무역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명(明)·청(淸)대까지 중국인 상인들 및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 주요 항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동남연해에 형성된 ‘점옥’ 건축양식이 동남아시아로 이식되었고,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 건축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그 기원을 남아시아의 벵갈(Bengal)지역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 인도 건축사 연구의 대가인 앤소니 킹(Anthony King)과 그의 연구를 받아들여 진먼(金門)지역 솽하우스 건축양식의 이식을 연구한 장보웨이(江柏煒)가 대표적이다(King 1982; 江柏煒 2012; 江柏煒 2003). 영국이 17세기 동인도회사를 필두로 남아시아에 처음으로 진출한 지역은 벵갈지역이었다. 이후 17·18세기에 걸쳐 벵갈지역에 거주하게 된 영국인들은 벵갈인들 특유의 주거형태인 방글라(Bangla 혹은 Bengali)에 유럽식 건축요소들을 가미하여 독특한 건축형식을 탄생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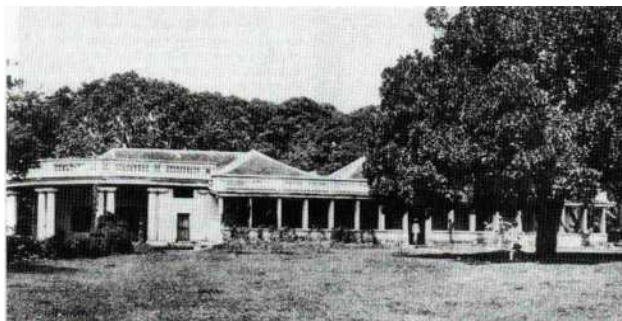
〈그림 1〉 벵갈 농촌 지역 농민들의 주요 거주형태인 방글라(Bangla)



출처: King 1982, 38.

〈그림 1〉에서 보듯 방글라는 벵갈지역을 비롯한 남아시아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토착건축 문화권인데, 그 특징은 비와 햇볕을 피하면서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는 외부 공간, 소위 베란다(Veranda)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을 넓혀 현관 전면의 일정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앞으로 튀어나온 지붕 양옆으로 기둥을 세움으로써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공간을 가진 주거지가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식 복도와 그 복도를 커버하는 넓은 지붕, 동시에 복도를 개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풍 등등을 특징으로 하는 벵갈지역 특유의 주거형식인 방글라는 이후 이 지역에 진출한 영국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19·20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 벵갈지역 영국의 식민지 관청, 1883년



출처: King 1982, 41.

1757년 플래시 전투(Battle of Plassy)를 계기로 영국은 인도에서의 식민지배를 공고히 했고, 1857년에는 세포이(Sepoy) 항쟁을 계기로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 방식이 동인도회사를 통한 간접통치(Company Rule)에서 영국왕실에 의한 직접통치(Crown Rule)로 전환하게 된다. 이 두 시기를 계기로 많은 영국인들이 인도로 이주하였고, 그에 따라 인도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방글라 건축양식을 모방한 건물들을 지었다. <그림 2>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풍 외관에 외랑(外廊)과 외랑을 덮는 지붕, 그리고 개방된 구조를 통한 통풍의 용이함을 노린 설계에 따라 지어진 건축양식을 벵갈로우(Bungalow)라고 불렀다. 즉, 18세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화하기 시작하면서 열대지방에서의 거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 토착건축인 방글라의 외랑과 개방식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벵갈로우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영국제국이 식민지인 인도의 열대기후를 견디기 위해 현지의 건축문화를 적용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근대적 건축문화에 인도의 토착건축문화가 결합된 ‘영인(Anglo-Indian)’ 혼종의 식민지 건축문화는 이후 영국의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계속 진화 및 변화하였다. 그리고 영국제국이 그 식민지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재

전파되어 변용과 현지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세기 초 영국은 싱가포르, 므라카, 페낭 등을 식민화하였고 1842년 남경조약 이후 홍콩을 할양받음과 동시에 주요 항구의 개항을 통해 조계지를 확보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아울러 영국이 인도에서 탄생시킨 특유의 병갈로우 역시 영국 제국의 확대와 함께 비슷한 기후적 특성을 지닌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 19세기 초중반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에 이용되었다. 장보웨이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문화가 다시 화교공동체에 의해 20세기 초중반 중국 대륙으로 재전파되었다고 한다. 즉, 중국 동남부 지역에 치로우 혹은 우자오치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솽하우스 형태의 건축양식이 중국을 근간으로 하여 동남아에 이식되었다가 다시 중국 대륙으로 재이식된 것이라는 관점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동남아 현지에 비슷한 형태의 건축양식이 존재했었다는 주장도 있다(泉田英雄·黄俊銘 1994). 일본의 건축사학자인 이즈미다 히데오(泉田英雄)의 경우 19세기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솽하우스 건축양식이 계획적으로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에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말레이시아 반도 및 자바섬에 비슷한 형태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건축양식이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맞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건축형태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말레이어로 카키 리마(kaki lima)라고 한다. 다만, 해당 건축양식이 주로 중국인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및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자생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첫 번째 중국대륙기원설과 연계하여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건넌 ‘점옥’ 건축양식이 열대지방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변형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솽하우스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뚜렷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근거가 확실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송대 이후 명·청시기까지 중국 동남연해 지역의 주요 항구도시에는 ‘점옥’ 형태의 주상복합의 건축양식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건축양식은 푸젠성과 광둥성 출신 중국 상인들 및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외부로 전파되었다(치로우). 특히 말레이시아와 자바섬의 주요 항구도시에서 형성된 중국인 거주지와 시장에는 비슷한 형태의 건축양식이 형성되어 있었다(카키 리마). 이후 영국 식민제국이 말레이 반도에 진출하면서 19세기 초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인도의 벵갈지방에서 가져온 외랑식 벵갈로우 건축양식을 도입하였고, 동시에 중국의 주상복합 건축양식을 혼합하여 동남아시아 특유의 식민지 도시건축문화, 즉 솽하우스(shophouse) 건축문화를 형성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³⁾

물론 솽하우스 건축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이식된 것임은 분명한 솽하우스 건축문화의 경우 - 그 기원이 어디였든 - 긴 시간에 걸쳐 중국, 영국제국, 동남아시아 등의 다양한 문화가 혼합하여 발생한 ‘혼종적 건축문화’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혼종성(hybridity)은 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로 탄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식민지 건축양식의 경우 상술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도심지 거리를 조성하는 솽하우스 건축양식으로 그 혼종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왜 중국의 점옥 형태를 도입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은 2장에서 서술하겠다.

상술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솽하우스 형태의 건축이 행정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도시구획 혹은 도시개발의 한 축으로써 계획적으로 건설된 경우는 19세기 초중반 싱가포르가 최초였고, 중국에서는 20세기 초반 광저우가 최초였다는 것이다. 즉, 19세기 중반 싱가포르 도시개발 이전의 솽하우스 건축문화가 주로 중국인 상인공동체에 의해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었다면, 그 이후 싱가포르, 광저우, 샤먼 등의 경우 식민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경우이다. 솽하우스라고 하는 혼종적 건축문화는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개의 솽하우스를 연속적으로 규칙성 있게 붙여놓음으로써 이전의 솽하우스 건축양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외랑(外廊, arcade)식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다.⁴⁾ 그리고 이는 열대라는 기후와 관련하여 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하여 본문에서는 솽하우스의 기원과는 별개로 정치/행정권력에 의한 도시개발과 그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형성된 솽하우스 건축문화의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Ⅲ. 19세기 싱가포르 솽하우스 건축군의 조성과 ‘5피트’ 공간의 발견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건설한 식민도시들의 일반적 특징은 제국주의 진출세력에 의해 도시가 일정하게 구획되고, 그 구획된 지역에 도

4) 도시개발과 함께 계획적으로 솽하우스 건축이 지어지기 이전의 주상복합 건축물들은 불연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지어졌다고 한다(泉田英雄·黃俊銘 1994).

시 거주민들이 인종적 고려에 따라 분산·배치된다는 점이다(Metcalf 2013).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한 직원인 스탬포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말레이시아 반도 꼬트머리에 붙어 있는 싱가포르라는 섬을 발견하고 그 잠재성을 인정, 므라카(Melaka)를 대신할 항구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획을 계획했을 당시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는 해변을 따라 각각 영국 제국민들을 비롯한 유럽인 거주지, 말레이인 거주지, 중국인 거주지, 인도인 거주지로 설정하고 해당 인종들을 배치하는 도시구획을 실시하였다.

〈지도 1〉 1828년 싱가포르 도시구획



출처: Singapore Land Authority,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지도 1>은 필립 잭슨(Philip Jackson) 장군이 래플스의 도시구획 비전(vision)을 토대로 1828년에 작성한 싱가포르 도시구획지도이다(Mok 2015). 지도에 나오는 ‘캄푹(Kampong)’은 말레이어로 마을(village, town)을 의미한다. ‘출리아 캄푹(Chuliah Kampong)’은 영국인들에 의해 자의 혹은 타의로 이주한 인도인들을 위한 거주지를 의미

하고, 부기스(Bugis)는 수백 년동안 말레이반도,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에 걸쳐 무역으로 삶을 영위한 해상상업종족을 가리킨다.

래플스는 싱가포르를 발견하자마자 말라카에 거주 중인 말레이인들에게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 각종 과일과 식량을 가져와 판매하게 하였고, 아울러 말라카에 거주 중인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항구, 교량, 공관 및 주거건축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였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등지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인 상인들이 싱가포르의 잠재력에 이끌려 이주함으로써 싱가포르는 다수의 인구가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대표적 식민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 항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촌에서 지금은 확장된 여러 구역들로 둘러싸여있고, 인구는 1만 명 혹은 1만 2천명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대부분은 주로 중국인들이다.”⁵⁾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플라카, 페낭,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와 거주지를 형성한 - 그리고 싱가포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 중국인 이주자들의 경우 1장에서 언급한 점옥 형태의 솥하우스 건축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래플스는 병갈로우의 구조를 차용하여 각각의 점옥 앞에 외랑을 형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래플스가 구상한 외랑은 단층 건물일 경우 지붕이, 복층 이상 건물일 경우 지붕을 포함한 이층이 앞으로 튀어나와 양옆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늘을 형성하는 구조였다.

“각각의 집은 일정한 너비의 베란다(verandah)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중앙대로 양측면에 연속적이면서 지붕으로 덮인 통로로써 항상

5) Sophia Raffles 1830, *Memoir of the Life and Public Services of Sir Thomas Stamford Raffles*, London: John Murray, pp.465-466, 재인용(Song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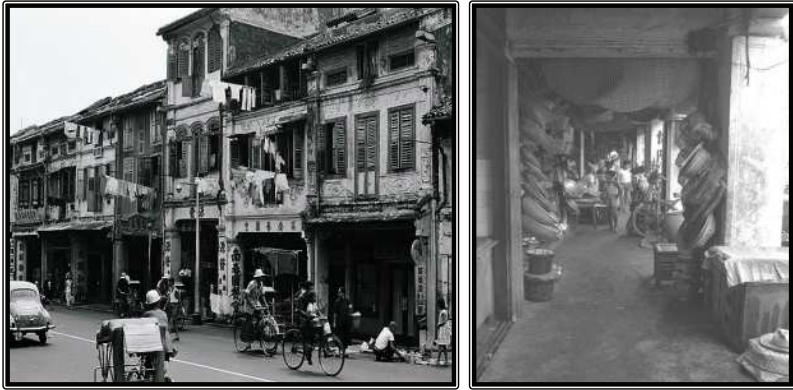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⁶⁾

중국식 주거형태인 점옥과 현관의 개방된 전면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병갈로우를 혼합하여 솽하우스 건축양식을 탄생시켰고, 이를 일렬로 일정하게 병렬시킴으로써 1층 현관 전면의 공간을 이은 외랑, 즉 베란다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전에 점옥 형태의 주거지에서는 이 1층 현관 앞의 공간에 주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비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외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 것이다. 그 너비가 다섯 발걸음에 달한다고 하여 흔히 ‘파이버 풋 웨이(Five foot way)’라고 지칭되었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번역한 ‘우자오치(五腳基)’라고 불리게 되었다.⁷⁾ 두 용어 모두 솽하우스의 병렬에 따라 발생한 5피트 너비의 통로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 통치의 근간이 되는 각종 해협식민지 법령(Acts and Ordinances of Straits Settlements)에서는 이 외랑을 주로 ‘베란다(verandah)’라고 지칭하고 있다. 베란다는 용어는 19세기 유럽의 도시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으로써, 자동차와 같은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출현으로 중앙도로 측면에 형성된 보행자 통로를 가리킨다(Yeoh 2003). 이 용어가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중앙도로와 솽하우스 건축군 사이에 형성된 지붕 덮인 통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그림 3> 참조).

6) 인용한 내용은 래플스가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위원회(Town Committee)’의 위원장에게 보낸 지시사항이다(Buckley 1902, 84).

7) 일반적으로 솽하우스 건축양식을 ‘치로우(騎樓)’로 번역하지만, 사실 치로우 건축양식은 중서합벽(中西合璧)의 건축양식을 통칭하는 용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솽하우스는 치로우의 한 종류인 것이다. 본 문에서는 점옥과 외랑식 건축구조의 혼합으로서 솽하우스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우자오치라고 지칭한다.

〈그림 3〉 싱가포르 솽하우스 건축양식과 외랑(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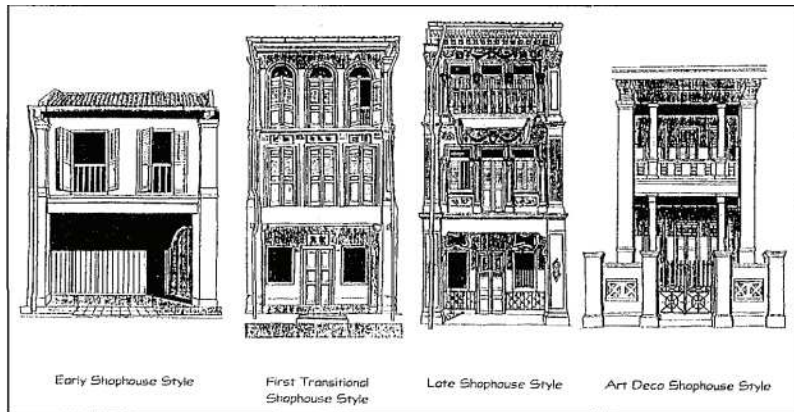
출처: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이후 싱가포르뿐 아니라 말라카, 페낭 등 다른 해협식민지 도시에까지 퍼지게 되면서 솽하우스(Shophouses)라고 불리는 연결식 주상복합 주거지가 동남아시아 서구식민지의 도심지 형성에 대세를 이루게 된다. 래플스의 이러한 정책 이후 영국 식민당국은 솽하우스를 밀집하여 건설하면서 시내 중심가의 주요 도로와 맞닿은 일층에는 필히 공간을 남기고 지붕을 덮음으로써 보행로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고,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이러한 건축양식이 싱가포르의 주요 주거양식이 되었다.

사실 이러한 솽하우스 건축양식을 통한 외랑(베란다)의 형성은 기후적 측면과 도시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우선 적도에 걸쳐 있는 싱가포르의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를 고려하여 보행자들이 햇볕과 우기의 비를 피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와 방화의 목적도 있었다(江柏燁 2003). 그리고 도시구획에 있어서 미관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는데, 기존의 일정하지 않은 건축물들의 병렬을 일정하게 정비하고, 중앙도로와 외랑의 폭을 연속적이고 통일성 있게 함으로써 질서정연하게 구획된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Buckley 1902, 84). 그리고 19세기 중후

반을 지나 20세기에 들어서면 점차 이러한 숭하우스 건축양식을 고층으로 짓기 시작하였고, 건물의 외관 역시 각종 상징물들을 활용하여 장식하기도 했다. 흔히 초기, 중기, 후기, 장식형 주상복합 건축양식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숭하우스 건축양식의 변화



출처: 江柏煒 2003.

흥미로운 점은 숭하우스 건축양식이 점차 고층화되고 화려해 지면서 각종 장식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각 종족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숭하우스 건축양식은 중국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인도인, 아랍인 거리에도 조성되었는데, 동일한 건축양식에 각 종족적/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의 이질성이 두드러져, 싱가포르가 강제된 초경계적 다문화/다종족 공동체인 서구식 근대 ‘제국(empire)’의 일원이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듯하다.

숭하우스 건축양식과 외랑의 조성은 싱가포르 -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 의 중국인 거주자들에게 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陳支平·徐泓 2008, 176). 우선 동남아시아 특유의 열대기후는 유럽

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역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기후적 고려가 가미된 건축양식이 환영받았다. 게다가 외랑을 두고 일층을 상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개방된 공간은 화교들 사이에 공적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또한 일층의 외랑들이 연결되어 복도(베란다)가 형성됨으로써 싱가포르 중국인 거주구역 및 중심가 특유의 상가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었다. 상술한 것처럼 화교들 사이에서는 우자오치(五腳基) 혹은 치로우(騎樓) 건축양식으로 불리며 이후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화교 거주지역의 주요 주거건축양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페라나칸(및 메스티조)이라고 불리던 중국인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 역시 이러한 건축양식을 통해 거주구역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페라나칸 건축이라고 불리며 해협식민지 특유의 혼종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숍하우스 건축양식과 외랑조성의 유행에는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인 이주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이 막 시작되던 19세기 초기까지만 해도숍하우스 건축양식은 기후와 도시외관을 위한 고려였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을 넘어서면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사실 19세기 아편전쟁 이전까지 청(淸) 제국은 남중국해를 건너 해외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중국인들을 기민(棄民)시하여 적발하는 즉시 사형에 처하거나 그들을 청 제국이 보호해야 할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大清律例』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모든 관원과 군인은 상업 및 이주의 목적으로 도항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상관없이 반역죄에 준하여 즉결처형해야 한다. 부(府)와 현(縣)의 관리가 도항하는 자들과 모의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역시 즉결처형에 처한다. (도항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관

리들은 추포되지 않더라도 파직하고 결코 임용하지 않는다.”(陳翰笙
主編 1985, 1)

그러나 아편전쟁을 통해 맺은 남경조약(南京條約)과 그에 따른 오투개항(五口開港)과 함께 청 제국의 인식과 외부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1860년대에 이르면 청 제국 역시 이들 화교노동자들 및 상인들의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게 된다. 이른바 국적법의 개정 및 대사 파견 등의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90년대에 이르면 해외거주 중국인들의 경제적 공헌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청 조정이 해외도항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하였다. 그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중국인 이주자의 숫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 인종에 따른 싱가포르 인구변화, 1871-1931 (단위: 명)

연도	전체	유럽인	유라시아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기타
1871	97,111	1,946	2,164	54,572(56%)	26,148	11,610	671
1881	139,208	2,769	3,094	86,766(62%)	33,102	12,138	1,339
1891	184,554	5,254	3,589	121,908(66%)	35,992	16,035	1,776
1901	228,555	3,824	4,120	164,041(71%)	36,080	17,823	2,667
1911	303,321	5,711	4,671	219,577(72%)	41,806	27,755	3,660
1921	418,358	6,145	5,436	315,151(75%)	53,595	32,314	5,717
1931	557,745	8,082	6,903	418,640(75%)	65,014	50,811	8,295

출처: Yeoh 2003, Appendix <Table A.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싱가포르의 전체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국인 이주자들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인구수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71년 56%에서 1931년 75%까지 증가한다. 거주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거

주공간의 부족이라는 도시행정적 문제점을 동시에 발생시킨 것 역시 사실이다. 1901년 싱가포르 식민정부에서 조사한 해협식민지의 인구 밀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이주자들이 주로 밀집해있는 지역의 한 가구당 거주인의 숫자는 평균 11명에서 13명에 이르렀다(Yeoh 2003, Appendix <Table A.7>). 즉, 한 집에 1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인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이 점차 제한된 중국인 거주구역을 넘어 그 영역을 확장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영국 식민당국에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거주공간의 부족을 그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솽하우스 건축양식이었다. 래플스에 의해 강조되었지만, 권고사항이었던 솽하우스 건축이 1882년이 되면 도시 중심가 주거건축의 규범으로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한다(江柏煒 2003, 195-196). 게다가 5피트 너비의 외랑식 통로 공간을 담보로 하는 솽하우스 건축양식은 급증한 인구에 의해 그 위험성이 높아진 도시위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풍과 배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거주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로 인해 개별 솽하우스의 폭을 줄이면서 배후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 길어지는 방향으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그림 4> 참조).

싱가포르 인구, 특히 중국인 이주자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솽하우스 건축군이 싱가포르 도심지의 도시환경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발생한 문제가 5피트 너비의 외랑식 통로, 즉 베란다 공간의 성격에 대한 문제였다.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싱가포르 식민정부의 입장은 명백하였다. 공공의 공간(public sphere)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로를 제공해 주고, 질서정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래플스는 1822년 인도인 거주구역(Chuliah Kampong)을 조성하면서 베란다 공간에서 노숙하며 취식하는 인도인들의 행태를 금지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Buckley 1902, 73). 영국 식민정부의 베란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제정한 해협식민지 법령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도로에 인접한 거주구의 개방된 베란다는 보행자를 위한 공공 도로이고, 각 가구주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The Laws of the Straits Settlements* Vol.2(1901-1907) 1920, 246)

사실 영국 식민정부의 입장에서는 베란다 공간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지만,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베란다 공간의 사적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기도 한 애매한 정의였다.⁸⁾ <그림 5>와 같이 실제 중국인 이주민들의 경우 솽하우스 건축군의 조성으로 발생한 베란다 공간을 그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영국 식민정부가 애초에 의도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베란단의 공공적 성격을 침해하는 현상이었다.

〈그림 5〉 솽하우스 베란다 공간의 사적활용



출처: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8) 사실 해당 법령에 베란다 공간에 대해 정의한 것은 중국인 이주민들이 춘절이나 중추절 등 각종 명절에 즐겨하는 풍습인 불꽃놀이를 베란다라는 공간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베란다 공간의 공간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불꽃놀이를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도록 유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공간인 베란다 공간을 각 솽하우스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다른 소매상들 및 호커(hawker)들이 확장하여 활용하였고, 노숙 및 취식하는 경우도 많아 영국 식민정부가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림에 보이는 현상들은 비교적 현대에 가까운 경우지만, 이미 1843년 싱가포르의 언론에서 솽하우스 주인들에 의한 베란단의 사적사용과 떠돌이 붓집 장사꾼들의 무단점유로 베란단의 원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매우 오래된 현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Buckley 1902, 387).

영국 식민정부에서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초기부터 횡행하던 베란단의 사적점유를 막기 위해 1853년 도시 최초의 자원보호법(Conservancy Act)을 시행하여 베란다 공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해 공공권을 강조하고, 싱가포르 식민정부 총독으로 하여금 베란단의 불법점거를 단속함과 동시에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물품들을 치울 것을 명령하게 된다(Yeoh 2003, 2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상술한 베란다 공간에 대한 영국 식민정부의 애매한 정의 때문이었다. 자원보호법을 통해 베란단의 사적점유를 금지한 이후인 1872년에도 여전히 영국 식민정부는 베란다 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공공도로이면서 각 솽하우스 소유주의 사적공간이라는 모순된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 식민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중국인 이주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므라카 스트리트(Melaka Street), 텔록 아이엘 스트리트(Telok Ayer Street), 캐널 로드(Canal Road) 등지에서는 중국인 상점주들이 직원들을 시켜 베란다 공간과 중앙도로에까지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있는 상황이 목격되고는 하였다(Yeoh 2003, 250).

영국 식민정부와 솽하우스 소유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 이주자들 사이의 베란다 공간의 활용을 둘러싼 긴장관계는 1880년대에 이르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특히 1887년 싱가포르 도시개

발과 행정을 담당하던 ‘싱가포르 시정위원회’의 성격이 시정을 논의하는 자문기관(Singapore Municipal Committee)에서 식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구(Singapore Municipal Commission)로 변화한 것이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로웰 박사(Dr. T. I. Rowell)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던 자원보호법의 실행을 강제하였다. 결국 1888년 2월 21일 로웰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베란다 공간에서 매매를 행하는 상점주들을 강제로 몰아내기 시작했다(Song 1923, 335).

중국인 상점주들 및 숭하우스 소유주들의 경우 이미 2월 20일부터 문을 닫고 장사를 접음으로써 항의를 표시하였고, 몇몇 중국인들은 유럽인들 및 공관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벌여 소수의 유럽인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위 ‘베란다 폭동(Verandah Riot)’의 시작이다. 몇몇 중국인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거꾼들을 동원하여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주하기도 하였다. 폭동이 심화될 기미가 보이자 시정위원회의 자문위원이자 중국인 이주자 그룹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영국인인 토마스 스콧(Thomas Scott)이 중재하여 2월 22일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Song 1923, 335).

베란다 공간을 이용하여 생존을 도모하던 많은 중국인 이주자들의 권리와 공공의 공간으로써 베란다 공간을 보행로로 확보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식민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은 숭하우스 상점주가 물건을 진열하되, 최소 2인 이상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확보해놓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Song 1923, 335). 그러나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공간의 활용을 보장받은 숭하우스 상점주의 경우 다시 장사를 재개했지만,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coolies), 호커들, 인력거꾼들(rickshaw coolies)의 경우 타결 뒤에도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유럽인

들을 공격하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였다. 비록 일시적으로 타협을 이루었지만, 이 베란다 공간을 둘러싼 식민정부와 중국인 거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이후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이어진다. 특히 싱가포르 전역을 다니며 베란다 공간에 불법으로 길거리 음식을 파는 호커들의 경우 1980년대까지 싱가포르 정부의 골치를 썩이는 존재였는데,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그들을 일제히 등록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을 판매할 공간을 공식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겨우 해결하였다. 싱가포르 로컬음식문화의 산실이라고 일컬어지는 호커센터의 시작이다.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의 기후, 도시개발과 도심지 형성을 위한 정연한 거리조성,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활용 등등을 고려하여 중국, 유럽, 동남아 열대문화가 혼합하여 탄생한 솽하우스 건축양식과 5피트 너비의 베란다 공간의 발견은 이후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부지역 주요 교향 및 개항도시들의 도심지 형성에 결정적인 공간활용의 예를 보여주었다. 동남아시아에서 형성된 이 혼종적 건축문화는 이후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광저우, 산터우(汕頭) 차오저우(潮州), 타이완, 취안저우(泉州), 장저우(漳州), 진먼, 샤먼, 홍콩 등 중국의 도시들에 이식되어 중국 동남부지역 도시개발과 도심지 형성의 주요 축이 된다.⁹⁾

9) 상술한 광저우의 솽하우스 건축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 있다. 대만의 경우 黃蘭翔(2015) 참조. 진먼의 경우 江柏煒(2012) 참조. 그 외에 동남아시아 각 주요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솽하우스 건축양식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건축학적인 입장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동서문화를 포용하는 구조적 혼종성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본문에서와 같이 역사적 맥락에서 초국가적 비교를 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관련 선행연구 목록은 서론 참조.

IV. 20세기 초반 샤먼 도시개발과 우자오치 건축양식

이 장에서는 그 중 푸젠성의 관문도시이자 가장 유명한 교향(僑鄉)의 하나인 샤먼의 도시개발을 사례로 솅하우스 건축문화의 중국대륙 전파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향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화교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가진 중국대륙의 도시 및 향촌을 일컫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화교들의 고향이다. 출신지역이라는 혈연·지연적 동질성 및 송금과 무역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연계성으로 인해 이주국(동남아시아)의 화교공동체와 그들 출신지역의 교향공동체 사이에는 일종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유대감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향과의 유대감은 화교경제 특유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동향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 역시 사실이다.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는 이주국에서 회관(會館), 방(幫), 종묘(宗廟)등과 같은 동향조직을 설립하여 교향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신의 발송, 교간(僑刊), 신문 및 잡지의 발행 및 공유 등의 활동이 관찰된다(Liu and Benton, 2016).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주국의 화교공동체와 교향의 종족공동체 사이의 유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것은 경제적 관계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 주로 연구되는 분야가 바로 화교송금이다.¹⁰⁾

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청 제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및 해외에서 성공한 화교 거부들의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반란과 자연재해로 피해를진 국내경제

10) 화교송금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성과가 존재한다. 연구경향 및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김종호(2010; 2016) 참조.

를 활성화하고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연납(捐納)제도를 시행하여 화교들에게 관작(官爵)취득의 기회를 주었다.¹¹⁾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화교 거부들이 관작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가에 연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상승을 통해 교향에서의 높은 지위 및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를 통해 이주국 화교공동체 내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교향에서의 지위 역시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쟁적으로 연납하려는 풍조가 형성되었다(江柏煒 2012, 6).

한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로 이주하여 노동력을 대가로 돈을 벌게 된 푸젠인들의 경우 - 광둥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 대부분 교향에 가족을 두고 온 성인 남성들이었기에, 그들이 번 돈을 교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해야만 했다. 그들이 해외에서 받는 임금은 모두 은화 혹은 외환이었으므로 국내로 송금되면 그것이 바로 은화 및 외환의 유입에 다름 아니었다. 이 유입은 푸젠성 무역적자의 경우 은 유출을 메우고도 남았고, 청 제국 전체 무역적자의 경우 매년 20-30%는 꾸준히 메워주는 역할을 하였다(Remer 1933; 陳爭平 1996). 지역 경제의 경우 무역적자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세금과 현금 소비의 원천이자 교향 가정경제의 기둥이었다(『中國銀行廈門市分行行史資料彙編』編委會編 1999, 157-158).

이렇듯 중앙과 지역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송금을 푸젠지역의 방언으로 교비(僑批)라고 지칭하였다. 교는 해외 거주민을 뜻하는 단어이고 비는 송금과 편지가 결합된 형태의 송금 방식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이었기에 안부편지를 함께 동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교비라고 불리는 화

11) 연납제도(捐納制度)는 청대의 중요한 인재등용 제도로서 과거제도와 서로 보충하는 제도이다. 특히 청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제도로 알려져 있다.

교송금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소위 쿨리(Coolie)라고 불리는 일반노동자들에 의한 가족부양송금과 동남아시아에서 치부(致富)한 화교상인(華僑)들에 의해 투자 및 개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송금이 그것이다.

〈표 2〉 1905~1938년 샤먼(廈門) 화교송금액 중 투자액 비율 (단위: 萬元)

	송금총액	투자총액	송금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1905-1926	26,830	500	1.88
1927-1938	19,296	658.1	3.41
합계	46,126	1,158.1	2.51

출처: 林金枝 1987, 21.

샤먼은 푸젠성의 대표적 관문항구로써 푸젠 출신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로부터 보내오는 대부분의 송금이 모이는 집산지의 역할을 하는 핵심도시였다. <표 2>에서와 같이 푸젠 출신 화교들이 보내는 송금총액에서 도시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두 교향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송금이었는데, 그 주요 용처는 의식주, 자녀교육, 경조사 등이었다(廈門華僑志編委會 編 1991, 155). 수백만의 화교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에 비하면 상인들에 의해 투자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송금액은 매우 적은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 제국 및 남경국민정부의 만성적인 무역입초를 메워준다는 사실과 푸젠성 화교 가족들의 가정경제와 교향의 지역경제를 지탱해 준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들에 의한 송금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 의한 투자목적의 송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그 투자행위를 통한 교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푸젠성 남부, 민난(閩南)지역사회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푸젠성 출신 동남아시아 화교 상인들의 투자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1871-1949년 지역별 푸젠화교 투자 통계

(단위: 人民幣)

	투자호수	투자액	푸젠성 전체에서의 비중(%)
福州市	30	6,828,925	4.90
廈門市	2,668	87,486,598	62.88
泉州市	529	7,993,511	5.74
晉江縣	632	6,726,137	4.83
南安縣	61	3,078,570	2.21
安溪縣	13	1,333,534	0.97
永春縣	9	2,988,672	2.14
莆田縣	10	577,291	0.41
漳州市	18	9,442,059	6.78
龍溪縣	20	2,981,750	2.14
기타	65	9,752,760	7
합계	4,055	139,189,807	100

출처: 林金枝·莊為璣 1985, 54.

<표 3>에서처럼 60%가 넘는 투자송금이 푸젠성의 관문도시인 샤먼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샤먼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원인은 첫째, 아편전쟁 이후 개항된 통상(通商)항구 중의 하나로써 일찍부터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대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둘째 샤먼은 푸젠 출신, 특히 민난 출신 화교들의 이민, 무역, 송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교향도시였기 때문에 푸젠 출신 화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도시였다. 셋째 도심지인 샤먼을 제외한 지역은 토비(土匪)로 불리는 도적들이 횡행해 치안이 불안정한 것에 비해 샤먼의 경우 치안이 꽤 안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1927년 이후 샤먼에서 대규모의 도시재개발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 역시 화교상인들에게는 투자할 만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표 4〉 1871-1949년 산업별 푸젠 화교 투자 통계

(단위: 人民幣)

	투자호수	투자액	평균투자액	푸젠성 전체에서의 비중(%)
공업	159	19,243,268	121,027	13.82
농업 및 광업	26	12,026,988	493,346	9.21
교통업	26	16,332,743	608,202	11.73
상업	569	18,775,730	33,000	13.49
금융업	114	7,955,466	69,785	5.71
서비스업	45	710,612	15,800	0.51
부동산업	3,116	63,345,000	20,328	45.53
합계	4,055	139,189,807	34,325	100

출처: 林金枝·莊為璣 1985, 55.

흥미로운 사실은 <표 4>에서 보듯 화교투자의 45%가 부동산에의 투자라는 점이다. 부동산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원인은 우선 부동산투자에는 위험성이 적다는 인식이 푸젠 출신의 동남아 화상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29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 이후 국외에 기업을 설립하고 있던 화상들이 재정적 타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비교적 안전한 중국 내 교향의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었다.

“향리(鄉裏)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명료한 방법은 주거의 건축이다. 가옥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이웃들 모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옥의 주인은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부를 축적했다는 과시를 부릴 수 있다. 가옥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陳達 1939, 8)

1908년부터 1938년까지 샤먼의 경우 2,145호(戶)가 화교들이 건설한 부동산 기업이었다. 자금 총액만 8,000만 은원(銀元)이었다고 한다(廈門華僑志編委會 編 1991, 171).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푸젠 출신 화교상인들의 인식이 1927년 샤먼의 도시개발과 맞물리면서 샤먼으로의

부동산 투자 붐(boom)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1927년부터 1937년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투자가 1871년 이후 전체 부동산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林金枝·莊為璣 1985, 466). 샤먼의 도시개발은 1927년 남경국민정부의 성립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남경국민정부는 화상(華商)들의 국내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투자 붐을 독려하기도 했다(福建省檔案館 1990, 448).

국민정부(國民政府)공포: 화교의 국내산업 관련 기업 창설 장려법

民國18年(1929년) 2월 27일 국민정부 공포, 해당일자부터 시행

제1조, 모든 화교의 국내산업 창업은 본 법에 의거하여 장려되어야 함.

제2조, 본 법에서 칭하는 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1. 건축업 2. 교통업 3. 제조업, 4. 농업 및 광업, 5. 기타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인민이 경영하는 산업

제3조, 제2조의 각 종 산업가운데 본 법의 장려책의 혜택을 받고 싶은 이는 반드시 (시정부산하)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를 통해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창업이 가능함.

제4조, 화교들이 창업할시 안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관청에 특별보호를 요청하여야 함.

제5조, 화교들은 창업할 시 반드시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교통기관에 요청하여야만 필요재료 및 관련 물품의 운반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8조, 외국인이 화교의 명의만 빌려 창업하거나 외국인과 화교가 합자하여 창업하는 경우 본 법의 장려혜택을 받을 수 없음.

위 법령의 제2조에서 보듯 남경국민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 분야 역시 건축과 교통망 산업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간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경국민정부의 정책적 독려뿐만 아니라 대공황으로 인해 중국 내 은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화상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푸젠 출신 동남아시아 화교의 교향 투자 및 부동산 개발이 남경국민정부시기(1927-1937) 샤먼에서의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샤먼의 도시개발은 새로운 도로의 건축과 함께 시작되었다. 1927년에서 1932년까지 도로의 신축이 급증하였는데, 1934년에 이르면 완성된 중심가의 신식도로가 8,897.75丈(1丈이 3.33미터, 그러므로 대략 총 30km)에 달했다. 동시에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에 맞닿은 거주구역 역시 빠르게 조성되었는데, 샤먼시 당국은 당시 도로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주거구역을 법령에 의거, 폐기하고 다시 짓기로 결정하였다(陳達 1939, 171-175). 여기에 수많은 화교 거부들이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면서 투자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샤먼에는 많은 근대적 고층상업 건물들 및 근대적 주택구역이 조성되었다. 새롭게 개척된 구역만 32블럭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이 주택공급 및 임대용으로 건설된 주거구역이었다.

〈지도 2〉 남경국민정부시기 샤먼시내 화교소유 부동산 (붉은색 표시)



中山路
思明南路
思明北路
思明西路
思明東路
大同路
開元路
橫竹路
鎮邦路
升平路
大中路
水仙路
鷺江道
廈禾路
公園路

1927년에서 31년 사이에 화교들이 샤먼에 세운 부동산 관련 기업은 초기 자본금이 20만 은원(銀元)이 넘는 것으로만 36개였고, 자금 총액이 3,000만 은원에 달하였다. 당시 샤먼 중심지의 사유건물이 7,000여 호(戶)였는데, 그중 화교소유가 50%에 달했다. 거의 140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넓이의 부동산이었다. <지도 2>에서 보듯 현재 샤먼의 중산루(中山路), 쓰밍루(思明路) 등 중심가와 조계지이자 화려한 서구식 별장이 있는 구랑위(鼓浪嶼) 및 9개의 시장 등이 대부분 화교들이 투자하여 개발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陳達 1939, 171-175).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샤먼시 인민정부에서 1961년 조사해 본 결과 샤먼시 전체에서 화교가 소유한 가옥만 7,536동, 총 건축면적 140만 평방미터로 전체 도시 사유건물의 73%에 달했다고 한다(陳達 1939, 171-175).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여 샤먼의 도시개발에 집중투자하기 시작한 화교들은 대부분 상업건물, 별장,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서구 식민지에서 경험한 근대적 건축물들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근대 시기에는 샤먼시의 조계지로 기능했던 구랑위 섬의 경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들이 진출하면서 건축한 공사 및 기업건물들 외에 화교 거상들이 건립한 수많은 별장들이 근대적 건축양식으로 함께 건립되었다.

무엇보다도 푸젠 출신 화교상인들이 샤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건설한 것은 바로 거주구역이었다. 다만 샤먼도심지에 주거지로서 대량으로 짓기 시작한 건축양식은 그들이 일찍이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혼종적 건축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솽하우스, 혹은 우자오치라고 지칭하는 건축물이었다. 샤먼의 도시재개발에서 우자오치 건축양식을 건설하라는 구체적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1910년대 광저우에서, 1920-30년대 같은 시기 진먼에서 이미 우자오치 건축양식을 통한 도심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샤먼으로 진출한 푸젠

출신 동남아 화교들 역시 도심지 조성에 있어서 우자오치 건축양식을 활용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楊宏烈 2010; Zhang 2015; 江柏煒 2003; 江柏煒 2012).¹²⁾

전술한 것처럼 1920-30년대 샤먼을 중심으로 민난지역 주요 도시개발열풍을 타고 수많은 화교상인들이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시작하였고, 이들 화교들에 의해 우자오치라 불리는 해협식민지 특유의 혼종적 건축문화인 솽하우스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상복합의 우자오치 건축양식은 고밀도의 거주밀집지역에 매우 유용한 주거 건축양식이었는데, 도시개발과 함께 이동해 온 대량의 거주민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근대적 상업지구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건축양식이었다(張雪冬 2008, 70). 즉,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솽하우스 건축과 샤먼에서의 우자오치 건축은 그 목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해협식민지 및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거주구역,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샤먼을 비롯한 교향에서의 활용 역시 거주구역임과 동시에 상업중심지를 형성함으로써 근대적 도시개발의 일축을 담당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샤먼의 도시재개발 당시 지어진 우자오치 건축양식에도 역시 싱가포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피트 너비의 외랑(아케이드)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외랑조성을 통한 도심지 거리의 형성은 영국 식민제국의 도시개발로 인해 발견

12) 샤먼시에 부동산 투자를 한 대부분의 화교들이 이 시기동안 샤먼시 도시 중심가를 우자오치 건축양식으로 조성했다는 데에는 기존 연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현재 중산루를 비롯한 샤먼시 중심거리는 여전히 우자오치 건축양식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중국 동남부 지역 우자오치 건축양식의 도입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는 1910년대 광저우 도심지의 재개발이 유일하다. 사실 샤먼, 진먼을 포함한 민난지역의 경우 도심지 형성에 있어서 - 관련 법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 일괄적으로 우자오치 건축양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그 요인과 의미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된 ‘공간’이다. 이 5피트의 ‘공간’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샤먼의 도심지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점 - 이는 광저우, 산터우, 취안저우, 장저우 등 중국 동남부 지역 주요 교향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성이다 - 이 흥미롭다. 싱가포르 식민정부와 중국인 이주자 그룹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한 ‘베란다 폭동’의 예에서 보듯, 이 5피트 너비의 외랑 공간은 도심지 쇼핑아케이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었고, 식민정부와의 충돌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활용성을 경험한 동남아 중국인 교향 투자자들에 의해 샤먼에 ‘의도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와 샤먼의 화교들에게 솽하우스 건축양식과 5피트의 공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 솽하우스(우자오치) 건축문화가 형성된 것은 중국인 이민자 그룹이 각 제국주의 식민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 및 역할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들어 영국 및 네덜란드가 제국의 운영형태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리는 기존의 무역로 중심에서, 대농장 혹은 광산 운영과 같이 면을 차지하여 1차 산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수의 이민자 수요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소수의 무역상들이 무역거래를 하기위해 거주하는 대시장 혹은 출입항구로서의 항구도시가 아닌, 대량의 장기거주민이 머무는 주거중심의 도시건설이 요구되었다. 그에 따라 중국인, 인도인, 현지인(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인, 부기스인) 등 대규모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이동과 이주, 현지적응 등의 해결이 시급해졌다. 동시에 그에 따른 각종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다, 이 시기 싱가포르가 발견되었고, 대규모의 중국인 상인들 및 노동자들이 자의 혹은 타의(서구의 식민당국자들은 원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인들을 중개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로 싱가포르에 이주함으로써 그 인프라

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실 서구로부터 온 식민당국자들은 철저한 도시구획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원주민들과 명확히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중국인 상인그룹은 그들의 생활잡화, 각종 물품 및 교역품 등을 중국의 교향으로부터 가져와 각 도시의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각종 금융서비스(송금, 환정, 전장, 대출)도 제공하였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각종 노동서비스(인력거, 대농장 및 광산의 인부, 호커)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업 및 노동서비스의 경우 중국인 이주자 그룹뿐만 아니라 현지 원주민들까지도 공급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호커들은 푸젠 및 광둥 음식뿐만 아니라 말레이, 인도, 아랍의 음식을 팔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 쉑하우스의 5피트 공간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인들, 인도인들에 의해서도 활용되고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각 거주민 그룹들은, 심지어 유럽인들도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중국인들을 통해 공급받게 되는데, 쉑하우스 건축군은 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인프라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양식이었다. 쉑하우스를 이용해 주상복합의 도심지 거리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환경에 필수적인 상가수요를 충족하고, 베란다 공간을 통해 기후적 고려와 함께 쇼핑아케이드를 외부에 형성함으로써 상품의 매매가 쉽도록 고려하였다. 영국 해협식민지 법령은 이를 ‘보행자의 순환(pedestrians circulation)’을 돕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인 이주자 제공의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싱가포르의 도심지에서 쉑하우스 건축양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공간활용에 훌륭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19세기 동안 싱가포르의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러한 도시개발의 과정과 쉑하우스 건축문화 및 5피트 공간의 유용성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중국인 이주자 그룹에게 이 5피트의 공간은 피식민자로서 그들의 지위에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있던 영국 식민정부에 반기를 들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내재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 화교화인들이 1920-30년대 샤먼시 도시재개발의 붐을 타고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5피트 공간을 그대로 이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서구 제국 식민도시에서 경험한 근대적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혼종적 문화인 솜하우스 건축양식과 5피트의 공간으로 형성된 쇼핑아케이드였기 때문에 민난지역 핵심 교향 도시인 샤먼의 재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경험한 근대적 요소를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샤먼의 외랑공간 역시 각 점포의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아열대 기후의 우기와 강렬한 빛을 피하려 하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림 6〉 1930년대 · 2000년대 샤먼 도심지 우자오치 건축문화



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스 (Wikimedia Commons)

V. 결론

장푸허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근대건축의 5가지 유형 가운데 이러한 외랑식 솽하우스 건축양식의 전래는 ‘영향형(影響型)’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문화의 계승보다는 이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張復 2011, 134-135).¹³⁾ 즉, 외랑 혹은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도심지의 아케이드를 조성한다는 도시구획 정책은 확실히 중국의 전통적 도시공간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동남아의 혼종적 식민지 건축문화가 이식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또한 동남아 화교들에 의한 도시개발투자가 활발했던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의 주요 교향들로부터 발견되는 건축문화로써 대륙 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19세기 영국의 식민도시로서 싱가포르의 도심을 형성한 건축양식과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당시 재개발된 샤먼의 중심가를 차지한 건축양식은 주상복합의 솽하우스, 즉 ‘우자오치’였다. 이러한 건축양식이 샤먼으로 퍼지게 된 것에는 일찍이 해협식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영국 식민제국의 혼종적인 건축문화를 받아들인 푸젠 출신 화교공동체의 투자와 개발로 인한 것이었다.¹⁴⁾ 그에 따라 주상복합의 솽하우스가 특히 밀집해있던 싱가포르의 중심가 풍경과 그 건축문화가 그대로 옮겨간 샤먼의 중심가 풍경이 동화해가는 현상을 근대시기 뿐만 아니라 그 유산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현대에도 목격할

13) 나머지 4가지 유형으로는 계승형(繼承型), 부분변이형(局部變異型), 조기개발형(早發型), 식민형(植民型) 등이 있다.

14) 사실 남경국민정부에 의한 도시재개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1920년대 초중반부터 우자오치 건축양식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대량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위기감을 느낀 동남아 화교들이 대량으로 민난 및 광둥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문화의 동화현상은 비단 해협식민지와 샤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난의 주요 교향들의 중심가에 서도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건축문화와 중국남부 주요 교향도시의 건축문화 사이에 보이는 이러한 문화적 동화현상은 국가와 민족중심의 화교정체성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의 성격에 대해 민족적/애국적 관점보다는 지역 간 초국적 문화이동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정체성(regionalism)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샤먼에 이식된 주거공간인 우자오치는 영국 식민문화, 동남아의 열대기후, 중국적 특성을 혼합한 혼종문화의 산물이다. 이는 두 지역에서 보이는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방적 문화이동 및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아닌, 이민을 통한 문화교류와 지역간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혼종문화가 탄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남중국해를 사이에 둔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동남부(광둥, 푸젠) 지역은 화교화인의 이민과 상업활동을 매개로 장기간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이어진 대규모 이민은 이 두 지역 사이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였고, 그에 따라 양 지역 간 동화현상 역시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초국적 중화문화는 다양한 분양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마주(媽祖)신앙, 불교신앙으로 대표되는 종교, 민난어 및 광둥어로 대표되는 방언 등이 그 주요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동화현상에 대해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시각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동화현상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관찰되는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남중국해 초국적 중화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투 고 일: 2019년 8월 23일

심 사 완 료 일: 2019년 8월 27일

게 재 확 정 일: 2019년 8월 27일

참고문헌

1. 국문

- 김종호. 2010. “남경국민정부시기 민남 화교 송금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45.
- 김종호. 2016. “중일전쟁 초기(1937-1941) 중국 및 화교 금융기업의 생존 전략.” 『중국근현대사연구』 71.
- 김종호. 2017. ““중화성”모색을 위한 시도들 - 서구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 경향 분석 -.” 『중국근현대사연구』 73.
- 박순관. 2002. “동남아 식민건축의 흐름과 성격 - 건축양식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5(1).
- 우동선·송명희·허유진·박주현·기세향. 2012. “말레이시아 폐낭섬 조시타운에서 주거유형의 다양성.”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이상현·윤인석. 1998. “말레이시아 화인거리의 형성과정과 도시주거에 관한 연구 - 말레이시아 말라카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建築歴史研究』 7(4).
- 전봉희·김지홍. 2007. “중국계 솽하우스와 비교를 통한 베트남 나옹의 특수성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11).

2. 중문

- 陳達. 1939. 『南洋華僑與閩粵社會』. 商務印書館.

- 陳翰笙 主編. 1985. 『華工出國史料彙編 第一輯 中國官文書選輯』. 中華書局.
- 陳爭平. 1996. 『1895-1936年中國國際收支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支平·徐泓 主編. 2008. 『閩南建築』. 福建人民出版社.
- 福建省檔案館. 1990. 『福建華僑檔案史料』. 檔案出版社.
- 黃蘭翔. 2015. “臺灣店屋的歷史溯源及其在近代都市改造下的轉化.” 『城市與設計學報』 22.
- 江柏煒. 2003. “‘五腳基’ 近代閩粵僑鄉洋樓建築的原型.” 『城市與設計學報』 13/14.
- 江柏煒. 2012. “金門洋樓: 一個近代閩南僑鄉文化變遷的案例分析.” 『建築與城鄉研究學報』 20.
- 林金枝. 1987. “1875-1944年華僑在中國的投資及作用.” 『廈門大學學報』 4.
- 林金枝·莊為璣 合編. 1985. 『近代華僑投資國內企業史資料選輯(福建卷)』. 福建人民出版社.
- 廈門華僑志編委會 編. 1991. 『廈門華僑志』. 鷺江出版社.
- 楊宏烈. 2010. 『嶺南騎樓建築的文化復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張雪冬. 2008. “近代閩粵僑鄉建築賞析.” 『建築評賞』 9.
- 張應龍. 2006. “輸入與輸出:廣東僑鄉文化特征散論:以五邑與潮汕僑鄉建築文化爲中心.” 『華僑華人曆史研究』 3.
- 『中國銀行廈門市分行行史資料彙編』編委會 編. 1999. 『中國銀行廈門市分行行史資料彙編(1915-194)』. 廈門大學出版社.

3. 일문

- 濱下武志. 2013. 『華僑・華人と中華網——移民・交易・送金ネットワークの構造と展開』. 岩波書店.
- 泉田英雄·黃俊銘. 1994. “屋根付テラスと連続歩廊の街並み景觀について-東南アジアの植民地都市とその建築様式に関する研究 その2.”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458.

布野修司 外. 2017. 『東南アジアの住居』. 京都大學學術出版會.

4. 영문

Barrett, Tracy C. 2012. *The Chinese Diaspora in Southeast Asia: The Overseas Chinese in Indo-China*. London: I.B. Tauris.

Bhardwaj, Monalisa and Pushplata Garg. 2016. "The Bungalow - Part of India's Vernacular Heri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73(4).

Buckley, Charles Burton. 1902. *An Anecdotal History of Old Times in Singapore: From the Foundation of the Settlements under the Honourable the East India Company, on February 6th, 1819, to the Transfer of the Colonial Office as Part of the Colonial Possessions of the Crown on April 1st, 1867*, Vol. I. Singapore: Fraser & Neave, Limited.

Butcher, JG and Dick HW. 1993. *The Rise and Fall of Revenue Farming: Business Elites and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in Southeast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Izumida Hideo. 2003. "A Study of British Architec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1830-1940."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36.

King, Anthony. 1982. "The Bungalow: an Indian Contribution to the West". *History Today* 32.

Koh, Ernest. 2013. *Diaspora at War: The Chinese of Singapore between Empire and Nation, 1937-1945*. Leiden: Brill.

Kuhn, Philip A. 2008. *Chinese Among Others - Emigration in Modern Times*.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Kuo Huei-Ying. 2006. "Chinese Bourgeois Nationalism in Hong Kong and Singapore in the 1930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6(3).

- The Laws of the Straits Settlements Vol.2 (1901-1907). 1920. London: Waterlow & Sons Limited.
- Liu Hong and Gregor Benton. 2016. "The Qiaopi Trade and Its Role in Modern China and the Chinese Diaspora: Toward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ransnational Capitalism'." *Journal of Asian Studies* 75(3)
- Ma Guoqing. 2017. "Intra-regional social system: Cases of Maritime Silk Road around the South China Sea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Anthropology and Ethnology* 1(7).
- McKeown, Adam. 1999. "Conceptualizing Chinese Diasporas, 1842 to 194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8(2).
- Metcalf, Thomas R. 2013. "Colonial Cities." *The Oxford Handbook of Cities in Worl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 Mok Ly-ying. 2015. "Chapter 3 Mapping Singapore: 1819-2014." *Visualizing Space: Maps of Singapore and the Region*. Singapore: National Library Board.
- Remer, C.F. 1933. *Foreign Investments in China*. New York: Macmillan.
- Song Ong Siang. 1923. *One Hundred Years' History of the Chinese in Singapore*. Singapore: National Library Board.
- Trocki, Carl A. 2002. "Opium and the Beginnings of Chinese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3(2).
- Wallach, Bret. 2013. "European Architecture in Asia." *The Geographical Review* 103.
- Wang Gungwu. 1991. *Chinese and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Yen Ching-Hwang. 1982. "The Overseas Chinese and Late Ch'ing Economic Modernization." *Modern Asian Studies* 16(2).
- Yen Ching-Hwang. 1984. "Chang Yu-Nan and the Chaochow Railway

(1904-1908): A Case study of Overseas Chinese Involvement in China's Modern Enterprise.” *Modern Asian Studies* 18(1).

Yen Ching-hwang. 2014. *Ethnic Chinese Business in Asia: History, Culture and Business Enterprise*. Singapore: World Scientific.

Yeoh, Brenda S.A. 2003. *Contesting Space in Colonial Singapore: 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ingapore: NUS Press.

Zhang, Jun. 2015. "Rise and Fall of the Qilou: Metamorphosis of Forms and Meanings in the Built Environment of Guangzhou." *TDSR* X X VI.

Abstract

Singapore · Xiamen Urban Development and Shophouse Architectural Culture

KIM JongHo
Sogang University

Shophouse also known as Qilou and Wujiaoqi in Chinese, a tropical architectural culture in Southeast Asian urban district, has been one of symbols showing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 Interestingly, this architectural culture had been spread throughout diverse main urban districts in East Asia, especially surrounding South China Sea rim, such as Singapore, Melaka, Penang, Batavia, Hong Kong, Canton, Cahozhou, Shantou, Xiamen, Quanzhou, Zhangzhou, Taiwan, Jinmen. It shows well the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Southeast Asia and South China through overseas Chinese trans- regional network.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features of forming urban district in Singapore via Shophouse; tracing the transplantation process of Shophouse culture from Singapore to Xiamen of Fujian Province; lastly, thinking the role of overseas Chinese doing business between Southeast Asia and South China in this trans-regional interaction of culture. Based on primary sources and existing secondary researches, this paper finds that the Singapore was the first port-city of building the main urban streets with shopping arcade through constructing

shophouse buildings. It was due to diverse consideration including natural environment, urban administration, increasing population, urban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o on. In 19th to 20th century, Singapore became one of the most modernized city in Asia with the well-developed and well-arranged urban districts. All these processes could be attributed to the major contribution of Chinese in Singapore because they had provided most urban infrastructure enjoyed by European, Malay, Indian, and Chinese. Therefore, it could be noted that the Shophouse is a hybrid culture developed and utilized by overseas Chinese in terms of urban administration.

This concept of shophouse architectural culture had been transmitted to Xiamen city, a major Fujian overseas Chinese home village and an essential port-city. With the plan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to launch the re-development of southeastern port cities, overseas Chinese with huge capital began to invest in property industry of Xiamen. At the same time, they formed the urban district following the way of constructing shophouse streets in Singapore and other cities of Southeast Asia. They already experienced this shophouse streets was a effective and well-arranged way of building modernized urban area in their hometown.

Shophouse architectural culture and ‘five feet’ spaces called veranda for shopping arcade had been a common urban environment throughout South China Sea rim until the mid 20th century. It has been inherited today as a legacy of overseas Chinese cultural network between South China and Southeast Asia.

Keywords: Shophouse, Qilou, Wujiaoqi, Singapore, Xiamen, overseas Chinese, Qiaoxiang, Urban Development